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E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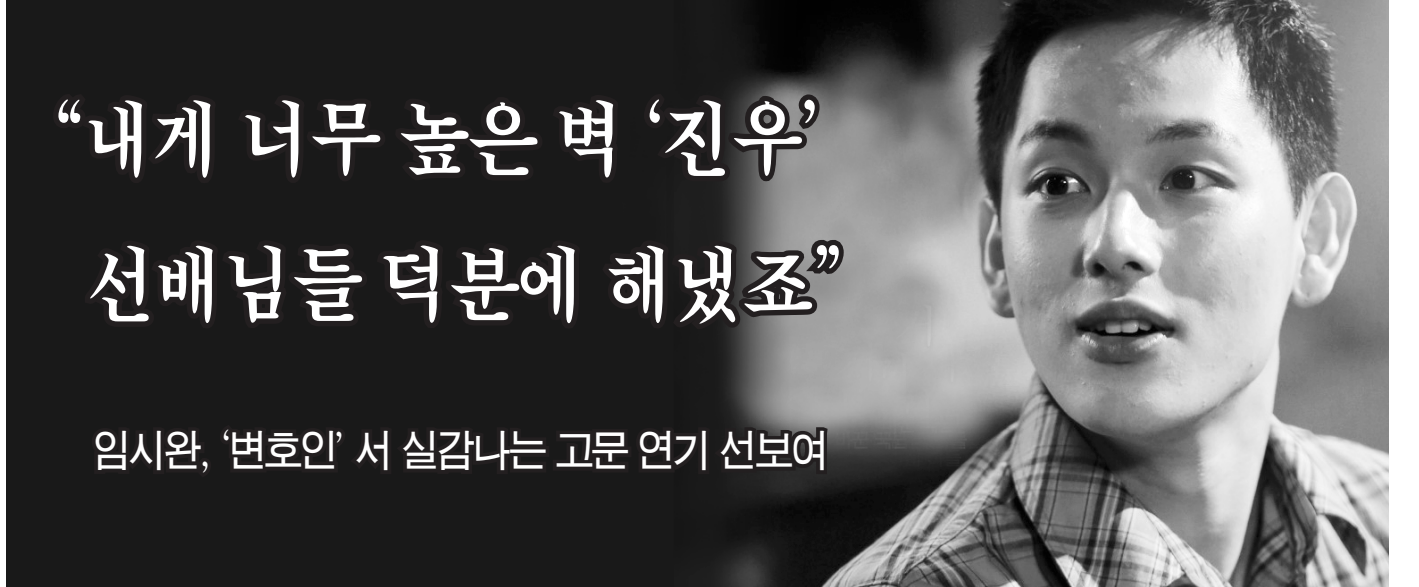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세기의 눈', '미술품협대',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수능 길잡이'.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다큐프라임 세계의 자연 시리즈', '수학의 원리 미스테리',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내게 너무 높은 벽 ‘진우’ 선배님들 덕분에 해냈죠”

임시완, ‘변호인’ 서실감나는 고문 연기 선보여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 시완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첫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첫 영화 ‘변호인’은 천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다. 송강호라는 대배우와 함께한 작품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정경에 의해 고문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대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역할로 천만 관객에게 다가갔기에 이제는 배우 임시완<사진>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지도 모를 일이다.

때문이에요. 이제 무엇을 하든 그게 저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 되어버렸어요.” 작품을 선택한 건 온전히 진우라는 캐릭터 때문이었다. ‘진우’가 그가 다닌 부산대 공대 선배라는 사실에 동질감을 가장 먼저 느꼈고, 꽤 높았던 오디션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것도 부산 사투리 때문이었다고 했다. 고문 장면을 찍기 전에 먼저 5kg를 쪼갰고 고문받는 장면에서는 10kg를 쪼갰다. 대역 없이 해낸 고문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송강호의 따끔한 충고가 있었다고 했다. “지금 내 나이는 연기를 잘할 수 없는 나이나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진심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했을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딱히 대답을 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는 꽤 늦은 편이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뭐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공안인설에 속아 정말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만 열심히 했을 만큼 순진했다. “과확상자 대화에 부산 대표로 나갈 만큼 기계 분야 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해야 하는 공부는 더 많고 써야 하는 리포트도 많고, 고등학교 4학년인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어 빈둥빈둥 방황하다 나간 가요계에서 관계자의 눈에 들어 연습생이 됐고 2년 만에 데뷔했다. 데뷔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와 비슷했다고 한다. 그는 “나는 가수로서 경쟁력이 없었다”며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덜컥 데뷔했으니 회개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연기에 데뷔했고 비로소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가수 때보다 많은 분이 알아주시고 인정을 주시니까 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겼구나 했어요. 그렇다고 가수 활동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준 계기이고 전 직업이 많거든요.”

‘아메리칸 허슬’ 골든 글로브 3관왕

코미디 뮤지컬 부문 석권... 남우주연상 디캐프리오

‘아메리칸 허슬’이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주요부문 3관왕에 올랐다. 12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허슬’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튼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코미디·뮤지컬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이 부문 여우주연상(에이미 애덤스)과 여우조연상(제니퍼 로렌스)을 받았다.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아메리칸 허슬’은 1970년대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거물 정치인을 수사하는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사기꾼의 협력을 다룬 작품이다. 폰소 쿠아론 감독은 3D SF영화 ‘그래비

티’로 감독상을 받았다. 남우주연상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뮤지컬·코미디)와 ‘탈러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코너히(드라마)에게 돌아갔다.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은 우디 앨런 감독이 연출한 ‘블루 재스민’의 케이트 블란체이 수상했다. 할리우드신기자협회(HFPA)가 매년 주최하는 골든글로브상은 전통적으로 아카데미상을 점칠 수 있는 지표로 손꼽힌다. /연합뉴스

Table listing Golden Globe award winners for 2014. Columns include category (Best Picture, Best Actor, Best Actress, Best Supporting Actor, Best Supporting Actress, Best Screenplay, Best Director) and winner names.

TV 하이라이트

멸종위기동물, 남미 들개



세계의 눈(EBS·밤 11시15분) = 야생생물의 천국인 브라질에는 야생의 개들이 살고 있다. ‘개잡이여우’나 ‘호리여우’ 등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먹이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출 적응한 ‘갈기늑대’나 ‘남미의 들개’ 등이다. 갈기늑대는 대조원지대에서 단독생활을 하는데, 1m 가량의 큰 키와, 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먹이를 덮칠 수 있는 가늘고 긴 다리, 어떤 야생의 개들과도 차별되는 멋진 갈기를 자랑한다. 홀로 사냥하는 갈기늑대와는 달리, 남미 들개는 무리로 움직이며, 암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땅굴 속에 모여 산다. 갈기늑대와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평생 아기 혜승이와 세남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 =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고 있는 혜승이는 5살 나이에 3살인 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 특유의 특징적인 외모와 함께 성장부진, 정신지체로 돌 수준의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혜승이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평소 정신지체와 느린 행동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장애물도 제때 피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혜승이는 남매들이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에 수시로 넘어져 몸 여가 지저기에 반항고 없는 날이 없다. 18개월이 된 아이처럼 보이는 물건을 수시로 입에 넣는 혜승이는 네 남매를 키우는 엄마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엄마는 항상 세 남매보다 혜승이를 먼저 찾는다.

북한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 = 북한은 경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관광 특구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는 등 서방 세계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특구를 13곳에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며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개발구’ 및 각종 특구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중국 상지 그룹과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사이에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서방, 특히 미국과 중국에 수십 년 지속돼 온 경제난을 타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3년 차, 북한은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이고 그 변화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전망해본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4일(음 12월 14일 乙酉).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descriptions and lucky numbers.